

# 平生教育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條件造成에 關한 研究

—施設과 資料를 中心으로—

金 南 碩 \*

## 目 次

- I. 緒 論
- II. 平生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의 理論的 背景
  - 1. 平生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
  - 2. 各國의 公共圖書館 現況
- III. 韓國公共圖書館의 施設現況 分析
  - 1. 公共圖書館 設置現況
  - 2. 公共圖書館의 奉仕施設 現況
  - 3. 公共圖書館의 藏書現況
- IV. 公共圖書館의 擴張을 위한 試案
  - 1. 公共圖書館의 設置
  - 2. 公共圖書館의 奉仕施設
  - 3. 公共圖書館의 藏書
- V. 結 論

\* 啓明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圖書館學科 副教授

## I. 緒 論

科學의 發展으로 高度화된 産業技術의 發達로 인한 社會構造의 變化現象은 公共圖書館의 目的과 機能에 계속적인 變化를 要求하고 있다. 美國의 Lawrence L. Durih는 이같은 社會變化에 대처하기 위해 公共圖書館은 平生教育, 再教育을 할 수 있게 하는 社會教育機能에 主要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sup>1)</sup> 이렇게 公共圖書館은 社會教育機關으로서 教育的 機能을 감당할 수 있는 時代的 要請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장과 變化를 시도하므로써 이용자가 自己教育을 위하여 必要로 하는 機關이 되게 하여야 한다.

公共圖書館이 平生教育의 場으로서 利用자의 教育機會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條件을 갖추는 데는 그것에 相應하는 充足要件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充足要件을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施設的 要因이고, 둘째는 人的要件을 包含한 非施設的인 要因이다. 이 論文에서는 施設的인 要因을 中心으로 論하였다. 公共圖書館이 施設中心의 社會教育機關인 점에서 모든 地域社會內에 公共圖書館의 施設的인 具備要件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先進國에서는 이미 公共圖書館이 施設中心의 社會教育機關으로 地域社會의 文化와 教育센터로서 地域的, 空間的, 內容적으로 地域住民에게 보다 가까이 接近하여 이들의 생활의 場이 되고 있다.

그러나 本考의 調査結果 韓國公共圖書館의 設置率을 보면 總人口 41,106,993名에 대하여 公共圖書館은 181個館으로 1館當 平均 奉仕對象者는 227,110名으로 나타나고 있어 公共圖書館이 社會教育機關으로서 教育的 本然의 役割을 감당하기에는 遙遠한 實情임을 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本考에서는 주로 施設的인 側面을 中心으로 現在 韓國 公共圖書館의 現況

1) 玄圭燮, “公共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圖協月報, 第16卷 第8號, (1975.11), p. 17.

을 알아보고平生教育의 場으로서의 役割遂行을 위한 施設的인 條件의 充足에 대한 그 試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分析을 위한 目的을 設定하여 보았다. 韓國公共圖書館의 設置現況, 奉仕施設, 藏書現況을 各種 統計資料를 基礎로 하여 (1) 거리적인 側面에서와 (2) 奉仕對象의 側面에서 市, 區, 郡別 設置率을 比較分析하고, (3) 正規教育機關인 初等學校의 學區別과 公共圖書館의 關係를 比較分析해 봄으로써 (4) 平生教育의 場으로서 韓國公共圖書館의 理想的인 施設基準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 II. 平生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의 理論的 背景

### 1. 平生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

오늘날 우리社會는 科學技術의 發達 뿐만 아니라 知識壽命의 減少, 經濟的인 水準 向上으로 인하여 급격한 變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社會變化에 適應하기 위하여 自己教育和 平生教育의 必要性이 더욱 切實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必要性에 의해서 形式的이거나 非形式的인 方法에 의하여 社會教育的인 機能을 遂行하는 機關이나 團體가 성원의 要求나 自體의 必要에 의해 자생되고 있다.

平生教育을 담당하는 社會教育機關은 社會教育活動의 類形에 따라 대개 (1) 學校中心의 成人教育, (2) 獨自의인 成人教育機關과 그 事業, (3) 文化施設中心의 成人教育活動, (4) 公共機關 및 產業體의 成人教育計劃, (5) 宗教機關의 成人教育活動, (6) 自願團體의 成人教育活動 등 여섯가지로 대별하고 있다.<sup>2)</sup> 이 중에서 圖書館이 展開하고 있는 社會教育活動은 文化施設中心의 社會教育機關인 것이다.

2) 黃宗建, 教育社會學: 地域社會와 學校, (대구: 螢雪出版社, 1971), pp. 154-158.

公共圖書館이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役割을 해야 한다는 當爲性은 圖書館法과 Unesco 宣言의 公共圖書館 目的, 그리고 公共圖書館에 관한 諸 理論들에서도 提示되고 있다. 圖書館法 第2條를 보면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해 公衆의 教養과 調査, 研究 및 레크레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sup>3)</sup> 라고 規定하고 있고, 또한 1972年 Unesco의 公共圖書館 宣言에서는 “公共圖書館의 目的을 教育, 文化, 情報를 위한 民主的 機構로서 成人과 兒童으로 하여금 時代에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自己教育을 하도록 하며 科學과 技術의 進步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機會를 提供하는 것”<sup>4)</sup> 이라고 규명하였으며 A. Johnson은 “民衆의 教育을 받는 民衆의 大學”<sup>5)</sup>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公共圖書館은 施設 그 自體가 平生教育을 위한 機關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公共圖書館은 地域住民의 平生教育이나 自己教育을 擔當하는 施設 中心의 社會教育機關으로서 특히 다른 社會教育機關과는 달리 “방대한 資料가 있기 때문에 理想的인 社會教育施設”<sup>6)</sup> 인 것이다.

그러나 公共圖書館이 韓國에서 社會教育機關으로서 제대로 發展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이 있다. 그 原因을 두개의 범주로 大別하여 보았다.

첫째, 施設的인 側面에서 본 問題의 要因으로 (1) 閱覽施設의 不足, (2) 資料의 貧困, (3) 大圖書館中心의 施設偏重, (4) 特定地域 즉 大都市地域의 施設偏重... 등을 들 수 있고,

둘째, 非施設的인 側面에서 본 問題의 要因으로 (1) 市民과 爲政者들의 公

3) 圖書館法, 第2條.

4) 李丙洙 譯, “公共圖書館의 基準(I)”, 國會圖書館報, 第12卷 第5號(1975.6,7).

5) Alvin Johnson, *The Public Library, a People's University*. (New York : American Association for Education, 1938), pp. 71-79.

6) 황종건·안태운·윤복남, 공저, 生涯段階別 教育政策 樹立을 위한 基礎研究: 平生教育理念을 中心으로, (서울: 韓國社會教育聯合會, 1978), p. 15.

共圖書館에 대한 認識不足, (2) 公共圖書館政策의 不在, (3) 所屬의 多樣化, (4) 人的構成에 있어서의 專門職의 任用問題, (5) 豫算의 不足, (6) 프로그램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教育의 兩大 領域을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으로 양분하여 볼때 韓國의 教育은 아직도 學校教育에 偏重으로 인한 社會教育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들 수 있다.

公共圖書館이 平生教育을 담당하는 施設中心의 社會教育機關이라면 優先的으로 具備하여야 할 條件은 언제 어디서나 必要한 施設로 地域住民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公共圖書館의 施設을 보다 擴大하여 가까이에서 친숙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2. 各國의 公共圖書館 現況

一般的으로 한나라의 經濟的 成長을 나타내는 尺度로서 GNP를 사용한다. GNP가 人口나 國民들의 所得水準이나 生活水準을 온전히 나타낸다고 볼수 없지만 대개 國家間에 經濟成長의 尺度로서 比較할 때 國民生活 水準을 나타내는 尺度로서는 1人當 GNP를 사용한다.<sup>7)</sup>

Joseph J. Lauer는 圖書館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가 所得이라는 점을 發見하고 國民 1人當 GNP와 圖書館의 發展을 比較 考察하였다. 이 결과 貧國은 대개 圖書館이 貧弱하고 富國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의 圖書館의 發展이 所得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의 經濟水準을 世界水準에 對比하여 韓國과 有似한 國家들에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比較해 보고자 한다.

7) 金日坤, 經濟學原論, (서울: 貿易經營社, 1982), p. 90.

8) Joseph J. Lauer, "Public Librari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ver time", *The Journal of Library History*, Vol. 19, No. 2, (Spring, 1984), pp. 217-218.

〈表1〉 國家別 1人當 GNP (單位：\$) 1985年

순위	국 가 명	GNP	순위	국 가 명	GNP
1	아랍에미리트	19,120	25	뉴 질 랜 드	7,310
2	브 루 나 이	17,580	26	오 만	7,080
3	미 국	16,400	27	이 탈 리 아	6,520
4	스 위 스	16,380	28	홍 콩	6,220
5	카 타 르	15,980	29	트리니다드	6,010
6	쿠 웨 이 트	14,270	30	이스라엘	4,920
7	노르웨이	13,890	31	아일랜드	4,840
8	캐나다	13,670	32	스페인	4,360
9	룩셈부르크	13,380	33	키프로스	3,790
10	스웨덴	11,890	34	그리스	3,560
11	일본	11,330	35	가봉	3,340
12	서독	10,940	36	베네수엘라	3,110
13	핀란드	10,870	37	수리남	2,570
14	호주	10,840	38	알제리	2,530
15	아이슬란드	10,720	39	한국	2,180
16	바레인	9,560	40	아르헨티나	2,130
17	프랑스	9,550	41	폴란드	2,120
18	네덜란드	9,180	42	멕시코	2,080
19	오스트리아	9,150	43	유고	2,070
20	사우디	8,860	44	말레이시아	2,050
21	벨기에	8,450	45	파나마	2,020
22	영국	8,390	46	남아프리카	2,010
23	리비아	7,500	47	포르투갈	1,970
24	싱가포르	7,420	48	헝가리	1,940

資料：現代社會研究所，IBRD '85”，2000年，1987年9月號，p. 85.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年 現在 韓國은 1人當 GNP에서 39位 (2,180\$)를 차지하고 있다. 1만달러 이상이 15個國이며 5千달러에서 1萬달러 미만인 14個國, 3千달러 이상 5千달러 미만인 7個國이다. 2千달러를 넘어선 韓國과 비슷한 國家로는 수리남, 알제리, 아르헨티나, 폴란드, 멕시코, 유고, 말레이시아, 파나마, 남아프리카가 있고 이중 韓國은 先頭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처럼 韓國이 世界國家들 중 GNP 順位에서 39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Lauer 씨의 調査結果에 의하면 분명히 韓國의 圖書館 發展은 先進國의 次元에 있어야 한다는 結論에 이른다.

그러면 韓國의 圖書館 發展은 世界의 어느정도의 水準에 있는지 살펴 보면 <表2>와 같다.

<表2> 世界 公共圖書館 對比表

1985年 現在

국 가 명	인 구 수	도서관	관당인구	장 서 수	1인당 장 서	조사년
한 국	41,106,993	181	227,110	4,517,280	0.11	1986
미 국	227,704,000	8,456	26,928	439,486,000	1.93	1978
일 본	118,964,000	1,028	11,572	97,172,000	0.82	1983
프 랑 스	54,129,000	1,141	47,440	64,379,000	1.19	1983
영 국	55,945,000	2,295	24,377	131,338,000	2.34	1980
캐 나 다	24,880,000	1,014	24,536	51,812,000	2.08	1983
브 라 질	129,754,000	3,600	36,043	18,106,000	0.14	1982
스 페 인	37,430,000	1,396	26,812	11,730,000	0.31	1980
멕 시 코	75,192,000	557	134,996	3,720,000	4.95	1983
네 덜 란 드	14,359,000	471	30,486	36,112,000	2.51	1983
스 웨 덴	8,325,000	414	20,109	42,886,000	5.15	1983
벨 기 에	9,852,000	2,351	4,200	24,140,000	2.45	1980
이 집 트	41,520,000	223	186,188	1,329,000	0.03	1980

국 가 명	인 구 수	도서관	관당인구	장 서 수	1인당 장 서	조사년
튀 니 지	2,788,000	280	9,957	1,315,000	0.48	1983
쿠 바	9,950,000	296	33,615	3,711,000	0.37	1983
페 루	18,715,000	557	33,560	1,950,000	0.10	1983
이 란	38,635,000	385	100,351	1,161,000	0.05	1980
스 리 랑 카	14,819,000	650	22,798	불명		1980
태 국	46,516,000	375	124,043	1,599,000	0.03	1981
알 바 니 아	2,731,000	3,631	752	5,712,000	2.09	1980
오스트리아	7,499,000	2,172	3,453	7,022,000	0.94	1984
불 가 리 아	8,964,000	5,664	1,583	52,977,000	5.91	1983
터 어 키	44,924,000	363	123,757	5,044,000	0.11	1980
덴 마 크	5,122,000	249	20,570	33,408,000	6.52	1984
핀 란 드	4,861,000	461	10,544	19,900,000	6.15	1984
동 독	16,708,000	9,003	1,856	46,873,000	2.81	1983
헝 가 리	10,679,000	2,069	5,161	46,370,000	4.34	1983
아이슬랜드	237,000	240	988	1,395,000	5.89	1982
노르웨이	4,119,000	454	9,073	15,966,000	3.88	1983
폴 란 드	36,798,000	9,700	3,794	113,900,000	3.10	1984
루 마 니 아	22,814,000	6,821	3,345	66,672,000	2.92	1984
유고슬라비아	22,746,000	803	28,326	27,141,000	1.19	1983
뉴 질 랜 드	3,096,000	209	14,813	6,077,000	1.96	1979
소 련	272,428,000	109,821	2,481	2,000,100,000	7.37	1983

資料 :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6, pp. I-7~I-10 ; VII-13~VII-20.

前述한 바와 같이 國民所得이 圖書館 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인 바, 韓國과 비슷한 水準의 GNP를 가진 國家와 그들의 圖書館現況과를 比較해 보았다. 이것이 韓國보다 앞선 GNP를 가진 國家와 比較하는 것보다 더



意味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2>에 제시된 國家 중 韓國 보다 國民 1人當 GNP가 낮은 國家로는 이집트, 덴마크, 태국, 터키, 페루, 스리랑카, 튀니지, 브라질, 그의 社會主義體制의 國家들을 들 수 있다. 이들 國家의 圖書館을 比較해 보았다.

圖書館設置에 있어서 韓國은 181個館인데 비하여 이집트 223個館, 덴마크 249個館, 튀니지 280個館을 設置하고 있어 韓國보다 20-35%를 상회하고 있고, 태국 375個館 그리고 터키 363個館으로 韓國의 2배, 멕시코와 페루는 각각 557個館으로 韓國의 3배, 스리랑카는 650個館으로 3.5배에 해당하는 圖書館을 設置하고 있을 뿐 아니라 브라질은 3,600個館으로 韓國의 20배에 달하는 圖書館을 設置하고 있다.

이를 다시 奉仕人口別에 따라 分析하여 보면, 韓國의 1館當 人口 227, 110名은 멕시코, 이집트, 태국, 터키와 比較해서 2배에 가까운 奉仕對象者를 가지고 있고 브라질에 비하면 6.3배, 페루에 비하면 6.8배, 스리랑카의 10배, 덴마크의 11배, 튀니지의 22.8배의 奉仕對象者를 가지고 있다.

藏書數에 있어서도 韓國은 1人當 0.11冊(100名當 11冊)인데 비하여 브라질 0.14, 페루 0.10, 터키 0.11冊이고, 멕시코 4.95, 덴마크 6.52冊으로 國家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社會主義體制의 國家인 알바니아, 불가리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 등의 경우와 比較해서도 韓國의 圖書館發展의 落後性을 쉽게 알 수 있다. 社會主義體制下에 있는 國家와의 比較에서도 韓國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圖書館設置에 있어서 알바니아 3,631, 불가리아 5,664, 체코슬라바키아 9,760, 동독 9,003, 폴란드 9,700, 소련 109,821個館으로 韓國에 비하여 최저 4.4배에서 최고 600배에 해당하는 圖書館을 설치하고 있고, 館當 奉仕對象의 경우도 유고 28,326名, 알바니아 752名으로 韓國은 이들의 8배 내지 300배의 奉仕對象을 가지고 있는 셈이며, 藏

書面に 있어서는 韓國의 100名當 11冊인데 비하면 유고 100人當 100冊, 소련 100人當 700冊으로 최저 1.19倍에서 최고 7.37倍나 되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도 韓國의 統計資料의 기점을 比較된 國家들 보다 1.2年 最近年度인 점을 감안한다면 韓國은 GNP의 水準이 上位權임에도 불구하고 圖書館만은 世界水準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地域社會의 住民生活에 있어 必要不可缺한 存在로 自生한 施設<sup>9)</sup>이 圖書館인 만큼 公共圖書館을 언제나 쉽게 接近할 수 있게 하고 平生教育의 場으로 設置되어 있는 先進國의 경우 처럼 韓國의 公共圖書館도 조속한 時日內에 施設이나 資料面에 있어서 經濟發展의 大열에서 뒤지지 않는 범국가적인 配慮가 시급한 실정이다.

### Ⅲ. 韓國公共圖書館의 施設現況 分析<sup>10)</sup>

#### 1. 公共圖書館의 設置現況

公共圖書館의 設置現況은 1) 設立 年度別, 2) 奉仕對象 人口別, 3) 奉象對象 地域別 現況으로 分析하였다.

##### 1) 設立年度別 現況

現代的 概念의 公共圖書館이 등장한 1900年代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公共圖書館의 發展過程을 보면, 1901年 10月 釜山支部에 公共施設로된 滄道館<sup>11)</sup>

9) K. C. Harrison, *The Library and the Community*, (Third Completely Revised Edition, London: Andre Deutsch, 1977),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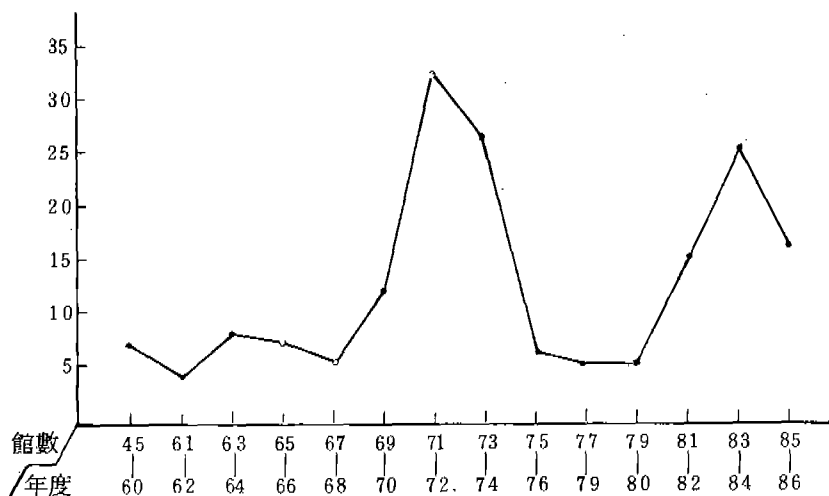
10) 本考에서 分析對象이 된 圖書館은 文教部 社會教育制度課에서 1987年 4月까지 조사한 「公共圖書館 現況」의 資料와 韓國圖書館協會에서 실시한 「韓國圖書館 統計調查表, 1986」를 比較 檢討하여 正確하게 確認된 圖書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1) 釜山市立圖書館, 釜山市立圖書館略史, (釜山: 同 圖書館, 1968), p. 2.

이 設置된 이후 發展을 거듭하여 1986年 現在에는 全國에 181 個館으로 擴張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發展을 年度別로 分析해 보면 1934年 日帝時代に 55 個館<sup>12)</sup>이었으나 解放後인 1957년에는 30 個館<sup>13)</sup>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중에도 北韓에 22 個館이 있었고, 南韓에는 8 個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sup>14)</sup> 1901年에서 부터 1986년까지 86年 동안 그 成長이 連續的인 것이 못되고 실제적으로는 時代나 政策의 變化에 따라 開館과 閉館의 反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圖表 1>은 韓國의 1900年 以後부터 1986年 現在까지의 公共圖書館 施設現況을 年度別로 살펴본 것이다.

<圖表 1> 年度別 圖書館 設置現況



資料 : 文敎部 社會教育制度課, 公共圖書館現況, 1987, 4月.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統計調查表, 1986年度.

12) 京城日報社 編纂, 朝鮮年鑑, 昭和 9年, (京城: 昭和 8年), p. 410.  
13)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7年, (서울: 同 通信社, 1947), pp. 261-262.  
14) *Loc. cit.*

<圖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0 ~ 1986年 現在까지 86年동안 173 個館이 증설되므로 每年 平均 2 個館이 設立된 셈이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1945年 부터 1960年까지 15年동안에는 7 個 圖書館이 設立되었다. 그러나 圖書館法이 分布된 1963년에는 5 個館이 設立되는가 하면 1971년부터 1974年까지 4年 동안에는 무려 58 個館이 設立되었다. 이렇게 많은 圖書館이 設立하게 된 것은 1969年 당시의 文教部長官이 社會教育政策으로서 社會教育의 底邊擴大一環으로 市, 郡單位の 公共圖書館 設立을 推進하였으며 이에따른 施策으로 文教部가 1970年代에 들어와 成人教室의 設置運營強化, 公共圖書館 設置計劃 및 運營強化 등을 重點的인 事業內容으로 推進한 國家政策의 影響으로 思料된다.<sup>15)</sup> 1970年代보다도 더 많은 量的 成長을 보인 80年代에 있어서도 1983年에 14 個館, 1984年에 11 個館, 1985年에 12 個館이 增設되었다. 이 때에도 1982年에 “圖書館을 社會教育施設로 한다”는 社會教育法이 制定되고, 1983年에는 社會教育法 施行令이 制定된 것에 그 影響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國家的인 施策으로 圖書館에 대한 몇가지 시안이 發表되기는 하였으나 이에따른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979年 5月 3日 國務總理가 <圖書館行政改善指示事項><sup>16)</sup> 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을 正점으로 한 市, 道, 郡, 邑, 面, 里까지 이르는 圖書館網 組織과 相互協力 體制強化, 公共圖書館의 段階的 擴充 및 遠距離 地域의 分館設置, 移動文庫 運營 등을 發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9年 당시와 그 次期年度인 1980년에는 圖書館 設置面에 있어서는 2, 3 個館만 增設되었을 뿐 별다른 發展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1986年 大統領 國政演說 및 第6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 計劃中 國民의 平生教育場으로서의 公共圖書館施設 擴充이 제시<sup>17)</sup> 되었

15)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研究所, 文教史: 1945-1973, (서울: 同 研究所, 1974), pp. 597-599.

16) “國務總理圖書館行政改善指示”, 도협월보, 第20卷, 第4號(1979.5), p. 30.

17) 朝鮮日報, 1986年 1月 17日, 3面.

음에도 불구하고 社會教育法이 制定된 당시의 影響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수효의 圖書館이 增設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단적으로 말해서 公約이나 政策에 並行하여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으로 볼 때 公共圖書館은 지금까지 社會의 급속한 變化에 相應한 발전은 고소하고 每年 60餘万名씩 늘어나는 人口의 增加速度에도 미치지 못하여 現狀維持마저도 어려운 實情이다. 韓國의 社會的인 成長에 발맞추어 先進대열의 文化施設로서 發展하기 위해서라도 公共圖書館의 소생을 위한 극적인 政策의 變化가 오지 않고는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發展은 요원한 것이다. 특히 公共圖書館의 施設的인 發展은 産業社會에로의 發展을 先導하는 教育機關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公共圖書館의 發展은 先導의 역할은 고소하고 自生을 위한 그 명맥유지에도 급급한 實情임을 否認할 수 있다.

2) 奉仕對象 人口別設置 現況

公共圖書館의 設置現況을 奉仕對象 人口別로 살펴보면 <表3>와 같다.

<表3> 奉仕對象人口別 圖書館 設置現況

1986年現在

市道別	人口數	圖書館數	館當奉仕對象
서울	9,798,542	24(1)	408,273
부산	3,578,844	12(2)	298,237
인천	1,441,131	3	480,377
대구	2,092,989	6(2)	348,831
광주	928,851	3	309,617
소계	17,840,357	48(5)	371,674

市道別	人口數	圖書館數	館當奉仕對象
경 기	5,075,449	23	220,672
강 원	1,750,707	16	109,419
충 북	1,356,160	8	174,520
충 남	3,009,102	11	273,555
전 북	2,192,133	11	199,285
전 남	2,848,897	18	158,272
경 북	3,035,391	22	137,972
경 남	3,516,829	21	167,468
세 주	459,968	3	153,323
소 계	23,266,636	133	174,937
총 계	41,106,993	181	227,110

( )안의 숫자는 分館으로 총수에 포함되어 있음.

資料: 文敎部 社會敎育制度課, 公共圖書館現況, 1987年 4月.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統計調查表, 1986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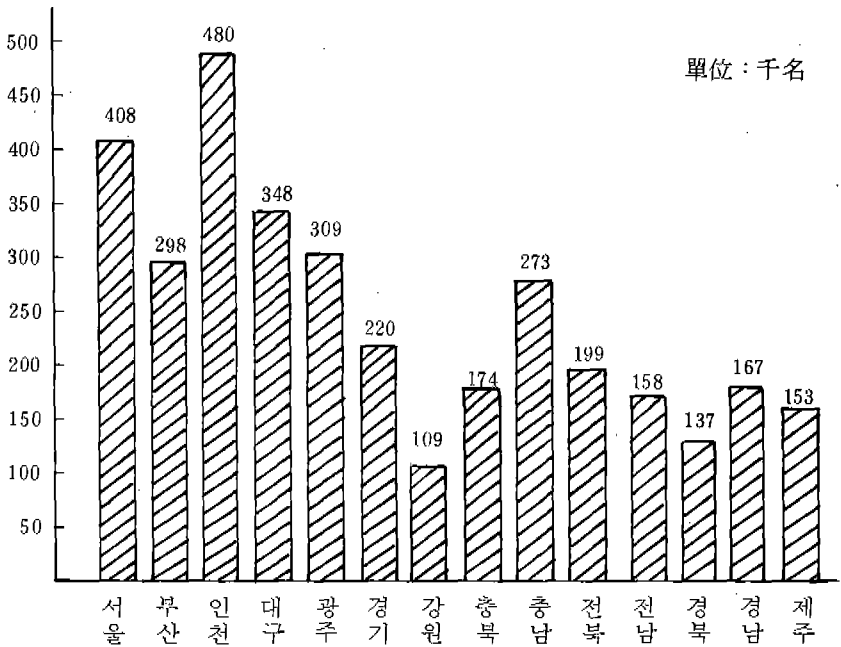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 總人口 41,106,993名에 대하여 公共圖書館은 181個館으로 1館當 平均 奉仕對象者는 227,110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에 따라 奉仕對象者를 다시 分析해 보면 1館當 奉仕對象 人口가 가장 적은 地域은 강원도로 109,419名인데 반하여 1館當 奉仕對象 人口가 가장 많은 地域은 인천직할시로 480,377名이라는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각 地域別로 살펴보면 <圖表2>와 같다.

<圖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市(直轄市 單位以上)와 道單位로 比較해 볼 때 道單位的 경우는 9個道 중 1館當의 奉仕對象이 最底 109,419名(강원도)에서 最高 273,555名(충청남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2個道를 제외한 6個道の 奉仕對象者는 대개 15万名 前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特別市와 直轄市의 경우는 1館當 最底 奉仕對象者가 29

<圖表 2> 地域別 奉仕對象者

1986 年現在



8,237名(부산직할시)에서 最高 480,377(인천직할시)으로 道單位에 比하여 平均 2倍 程度의 奉仕對象 人口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2>에서 언급한 바 있는 35個國의 1館當 奉仕對象 人口의 平均値가 38,777名인 것으로 볼 때 韓國의 227,110名은 6倍를 상회하고 있어 世界平均 基準에서 6個館이 相當해야 할 奉仕對象者를 韓國의 公共圖書館은 1個館이 相當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最低水準인 186,188名(이집트)과는 1.2倍, 最高水準인 752名(알바니아)과는 무려 300배에 해당된다.

한편 Charles Armstrong의 實驗結果에 의한 基準에 의하면, 最低 2,000名에서 最高 100,000名에 1個館의 公共圖書館이 設置되어야 하고 資料의 利用을 위해서는 5,000名 또는 그 이하의 奉仕對象人口라야 한다<sup>18)</sup>는 것이다.

18) Paul H. Sheats, et al, 성인교육(Adult Education), 홍순철 역, (서울: 文敎部, 1963), p. 202.

한 地域도 없을 뿐 아니라 最高의 基準인 100,000 名에 도달하는 것은 강원도 한 地域 뿐이다. 그 밖의 市와 道는 最小 1.4 倍 내지 4.8 倍 이상의 奉仕人口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8 個道 중 5 個道는 약 1.5 倍, 3 個道는 2 倍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直轄市의 경우는 거의 3 倍에 육박하고 그 중 한 個의 直轄市는 4.8 倍를 상회하고, 서울특별시는 4 倍를 초과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現在 韓國公共圖書館이 奉仕對象者를 위한 圖書館이 아니라 외형적인 전시적 效果를 위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公共圖書館으로서 본래의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館當 人口比를 줄이므로서 보다 가까이에서 圖書館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施設이 全國적으로 擴散되어야 할 것이다.

### 3) 奉仕對象 地域別 設置現況

公共圖書館의 設置現況을 奉仕對象 地域別로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表 4> 市, 區, 郡別 圖書館 設置現況

1986 年 現在

市道別	行政單位			圖書館數	圖書館設置率			總設置率
	市, 區	郡	小計		市, 區(%)	郡(%)	小計	
서울	17		17	24	12 (70.6)		12	70.6
부산	10		10	12	8 (80.0)		8	80.0
인천	4		4	3	3 (75.0)		3	75.0
대구	6		6	6	5 (83.3)		5	83.3
광주	3		3	3	2 (66.6)		3	66.6
경기	12	19	31	23	10 (83.3)	12(63.2)	22	71.0
강원	7	15	22	16	7(100.0)	5(33.3)	12	54.5
충북	3	10	13	8	3(100.0)	4(40.0)	7	53.8
충남	5	14	19	11	4 (80.0)	7(50.0)	11	57.9
전북	5	13	18	11	5(100.0)	5(38.5)	10	55.5
전남	6	22	28	18	5 (83.3)	12(54.5)	17	60.4
경북	9	24	33	22	9(100.0)	12(50.0)	21	63.6
경남	8	19	27	21	7 (87.5)	12(63.2)	19	70.4
제주	2	2	4	3	2(100.0)	0(00.0)	2	50.0
計	97	138	235	181	[30](75.0) 52 (91.2)	69(50.0)	151	64.2

[ ]는 直轄市 以上の 區數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行政區域은 總 235 個(市·區·郡單位)<sup>19)</sup> 이지만, 이중 圖書館이 設置된 市·區·郡 地域은 151 個地域으로 그 設置率은 64.2%에 불과하여 아직도 35.8%의 地域에 圖書館이 設置되어 있지 않다.

이를 各 市·區·郡別로 살펴보면, 特別市와 直轄市의 1區를 設置單位로 했을 때 5 個의 市單位에 속한 40 個區 중 公共圖書館이 設置된 地域은 30 個區로 75%의 設置率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道單位에 소속된 市地域의 設置率은 57 個 市 중 52 個 市에 設置되어 있어 91.2%라는 比較的 높은 設置率을 보이고 있으나, 138 個의 郡單位에 있어서는 69 個 郡에만 圖書館이 設置되어 있어 50%의 設置率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서도 特別市와 直轄市와 같은 都市地域이 全體 圖書館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道單位에 있어서도 行政中心地나 産業地域인 市單位에 편중되어 있어 比較的 文化的인 惠澤을 많이 받는 地域에 주로 設置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各 地域別로 比較分析해 보면, 圖書館設置率이 가장 높은 地域別 순위가 대구직할시 83.3%이고, 이와 반대로 設置率이 가장 낮은 地域은 제주도로 50%의 設置率을 나타내고 있다. 市(特別市, 直轄市)單位에서 가장 낮은 地域은 인천직할시가 75%이고, 道單位에서는 경기도가 71%, 제주도가 50%로 가장 낮은 設置率을 나타내고 있다. 各 道單位內의 市地域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경우는 100%의 設置率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일 道內의 郡地域의 圖書館設置率은 最高 50%에서 最低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상의 結果로 볼 때 韓國公共圖書館의 地域別 設置現況은 奉仕對象人口別에 따른 圖書館設置率과는 달리 比較的 文化惠澤이 적은 郡單位 以下의 地域은 크게 落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鑑, 1986年版, (서울: 經濟企劃院, 1986), p. 13.

## 2. 公共圖書館의 奉仕施設現況

公共圖書館의 奉仕施設이라 함은 建物の 面積과 閱覽席으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公共圖書館의 1館當 施設에 대한 基準은 地域이나 人口分布 등에 따라 각각 그 基準이 다르고 國家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몇가지 경우를 보면 日本의 公共圖書館振興策에서는 1館當 基準 700㎡,<sup>20)</sup> 프랑스는 500㎡~800㎡,<sup>21)</sup> 그리고 韓國은 1000人當 2㎡~34㎡등으로 그 基準을 設定하고 있다.

公共圖書館의 建物の 面積을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表 5> 人口比에 의한 公共圖書館建物面積 現況 1986年現在

市道別	公共圖書館	市區郡數	市區郡別 平均人口	圖書館 年坪數	1館當 坪數	韓圖協에 * 의한 總坪數	現在確保率 (%)
서울	24	17	576,385	24,925	1,039	108,000	23.1
부산	12	10	357,884	3,791	316	30,000	12.6
인천	3	4	360,283	3,791	1,264	4,500	84.3
대구	6	6	348,832	7,265	1,211	9,000	80.7
광주	3	3	309,617	4,827	1,609	4,500	107.3
소계	48	40	446,009	44,600	5,439	156,000	28.6
경기	23	31	163,724	7,724	336	20,700	37.3
강원	16	22	79,578	4,354	272	11,400	30.2
충북	8	13	107,396	2,479	310	7,200	34.4
충남	11	19	158,373	1,793	163	9,900	18.1
전북	11	18	121,785	2,058	187	9,900	20.7
전남	18	28	101,746	4,232	235	16,200	26.1
경북	22	33	91,982	5,529	251	19,800	27.9
경남	21	27	130,253	5,332	254	18,900	28.2
제주	3	4	114,992	2,242	747	2,700	83.3
소계	133	195	118,870	39,667	298	116,700	34.0
계	181	235		84,267	466	272,700	30.9

\* 計算基準은 1館當 서울 4,500坪, 釜山 2,500坪, 그 外의 直轄市 1,500坪, 道單位 900坪으로 환산.

資料: 韓國圖書館協會, 基準分科委員會 編, 韓國圖書館基準, (서울: 同協會, 1981), p. 21.

文敎部 社會敎育制度課, 公共圖書館現況, (1987. 4)

20) 小林文人 編, 公民館, 圖書館, 博物館, (東京: 亞紀書房, 1977), p. 47.

21) 프랑스의 公共圖書館 (La lecture Publique en France), 日佛圖書館協會 編, (東京: 1982), p. 62.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公共圖書館의 建物 總面積 84,267坪으로 1館當 平均 468坪이다.

이를 다시 地域別로 살펴보면, 市單位에 있어서는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4個 地域이 平均 2 배를 상회하는 1,000坪 이상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道單位에 있어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8個 道는 겨우 50%에 해당하는 平均面積을 確保하고 있다.

이것을 韓國圖書館協會 基準分科委員會의 公共圖書館 施設基準<sup>22)</sup>에 따라 分析하여 보면 광주직할시를 제외한 4個 市單位와 9個 道는 이 基準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市單位에서는 서울특별시 23.1%, 부산직할시 12.6%의 確保率로 가장 저조한 施設을 가지고 있고, 道單位에서는 제주도 83.3%를 제외한 8個道가 最高 37.3%(경기도)에서 最低 18.1%(충청남도)로 저조한 確保率을 나타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地域別 圖書館當 建物面積을 살펴보면 <表 6>과 같다.

22) 韓國圖書館協會 基準分科委員會 編, 韓國圖書館基準, (서울: 同 協會, 1981), p. 21.

한국도서관협회 시설기준안

총인구구분	인구 1,000명당	최저평수
800만 이상	2 m <sup>2</sup>	4,500 평
500만 이상	2.5 m <sup>2</sup>	3,500 평
300만 이상	3 m <sup>2</sup>	2,500 평
100만 이상	5 m <sup>2</sup>	1,500 평
30만 이상	15 m <sup>2</sup>	1,300 평
20만 이상	20 m <sup>2</sup>	1,200 평
10만 이상	30 m <sup>2</sup>	900 평
5만 이상	34 m <sup>2</sup>	200 평

&lt;表 6&gt; 圖書館當 建物面積現況

1986 年現在, 單位: 坪

시도별	50 평 미 만	51- 100	101- 150	151- 300	301- 500	500- 1000	1001 이 상	불명	계
서울	1		1	2	5	7	8		24
부산			2	2	6	1	1		12
인천						1	2		3
대구		2					4		6
광주					1		2		3
소계	1	2	3	4	12	9	17		48
경기	4	5	2	3	3	5	1		23
강원	1	4	4	4	2		1		16
충북		2	2	1	2		1		8
충남		3	5	1	2				11
전북		5	4	1		1			11
전남	2	4	2	3	5	2			18
경북	1	6	6	3	1	3	1	1	22
경남	2	5	1	6	3	4			21
제주		1	1				1		3
소계	10	35	27	22	18	15	5	1	133
총계	11	37	30	26	30	24	22	1	181
%	6.1	20.4	16.5	14.4	16.5	13.3	12.2	0.6	100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1 個館의 全體 36%에 해당하는 67 個館이 51 坪~150 坪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다음은 301 坪~500 坪에 30 個館, 151 坪~300 坪에 26 個館 順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最小經營單位의 規模라도 學校教室의 한칸 面積인 50 坪은 確保되어야 하지만 11 個館은 이 基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分析해 보면 181 個의 公共圖書館은 100 坪 미만이 48 個館(26.5%), 150 坪 미만이 78 個館(43%), 300 坪 미만이 104 個館(57.4%), 500 坪 미만이 134 個館(73.9%)이나 되고, 500 坪 이상은 47 個館으로 25.5%에 불과한 실정이다.

地域別로 보면 市單位에서는 48 個館중 22 個館이 500 坪미만으로 46%나 되고, 500 坪 이상은 26 個館으로 54%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道單位에서는 133 個館중 112 個館이 500 坪미만으로 84%를 차지하고 500 坪 이상은 21 個館으로 16%에 불과한 실정이며, 54%에 속하는 72 個館이 150 坪미만이다. 그리고 50 坪미만에 속한 11 個館중 10 個館이 道單位에 設置된 圖書館이란 점은 道單位的 圖書館施設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韓國의 公共圖書館은 地域別에 의한 圖書館 設置率도 문제이지만 設置된 施設도 大都市나 市地域에 편중되어 있고 이것마저도 중심지에 위치하여 大型化하는 傾向이 있다. 이로 인해서 소수의 圖書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圖書館이 사실상 본연의 機能을 생각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들이 保有하고 있는 閱覽施設 現況을 보면 <表7>과 같다.

<表7>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韓國公共圖書館이 保有하고 있는 總座席數는 88,455 席으로 1 座席當 奉仕對象人口는 465 名이다.

이를 다시 地域別로 살펴보면 座席當 人口比는 광주직할시가 176 명으로 가장 적은 對象 人口를 가지고 있고 대구직할시 301명, 제주도 33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많은 對象 人口를 가진 地域은 충청남도 1000명, 전라북도 809명 순으로 道單位的 圖書館들이 市單位에 비해 倍이상의 座席當 奉仕對象者를 가지고 있다.

한편 公共圖書館의 일반적인 基準이 되고 있는 1,000명당 5 席<sup>23)</sup>에 의하면 韓國은 최소한 205,535 席의 施設이 있어야 하지만 現實情은 이 基

23) 三浦道雄, 圖書館施設設備, (東京: 코나社, 1969), p. 182.

&lt;表7&gt; 人口比에 의한 閱覽施設 現況

1986年現在

시 도 별	인 구 수	좌석수	1석당 인 구	1000인당 5 석	설치율 (%)
서 울	9,798,542	23,971	409	48,993	48.9
부 산	3,578,844	9,970	359	17,894	55.7
인 천	1,441,131	2,976	484	7,206	41.3
대 구	2,092,989	6,956	301	10,465	66.5
광 주	928,851	5,284	176	4,644	113.8
경 기	5,075,449	7,978	636	25,377	31.4
강 원	1,750,707	3,502	500	8,754	40.0
충 북	1,396,160	2,888	483	6,981	41.4
충 남	3,009,102	3,009	1,000	15,046	20.0
전 북	2,192,133	2,711	809	10,961	24.7
전 남	2,848,897	4,477	636	14,244	31.4
경 북	3,035,391	7,017	433	15,177	46.2
경 남	3,516,829	6,352	554	17,584	36.1
제 주	459,968	1,364	337	2,300	59.3
계	41,106,993	88,455	465	205,535	43.0

資料：三浦道雄，圖書館施設設備，（東京：コロナ社，1969），p. 182.

準의 43%에 불과하고, 광주직할시를 제외한 全地域이 최고 66.5% (대구 직할시)에서 최저 20% (충청남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5市單位の 경우에는 평균 65% 이상의 設置率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道單位에서는 平均 36.7%의 設置率 밖에 되지 않아 1석당 人口比에서와 마찬가지로 座席數에 있어서도 市單位에 비해 道單位가 크게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各 地域別 閱覽施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8>과 같다.

&lt;表8&gt; 圖書館當 閱覽施設現況

1986年現在

시도별	50석 미 판	51- 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800	801- 1500	1501- 이 상	불명	계
서울			1	1	1		5	12	2	2	24
부산			1		4	2	3	1	1		12
인천							1	2			3
대구			2					3	1		6
광주							1		2		3
소계			4	1	5	2	10	18	6	2	48
경기	1	2	11	2	1		3	3			23
강원		3	8	1	1	2	1				16
충북		2	3		1	1			1		8
충남			5	3	1		2				11
전북	1	1	5	2	1			1			11
전남		1	7	5	1	2	2				18
경북		2	9	3	2	1	4	1			22
경남	1	5	4	3	3	1	2	2			21
제주			1	1				1			3
소계	3	16	53	20	11	7	14	8	1		133
계	3	16	57	21	16	9	24	26	7	2	181
%	1.7	8.8	31.5	11.6	8.8	5.0	13.3	14.3	3.9	1.1	100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1個 公共圖書館 중 全體 60.8%에 해당하는 110個館이 51席에서 400席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101席~200席이 57個館으로 全體 圖書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韓國圖書館協會의 施設基準案은 최소의 규모라도 50席 이상을 유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4)</sup> 그러나 50席미만의 圖書館이 33個館이나 있어 名稱上的 公共圖書館 이상일 수가 없다.

400席 미만의 圖書館을 地域別로 살펴 보면, 市單位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24個館중 3個館, 부산직할시는 12個館중 5個館, 대구직할시는 6個館중 2個館이고, 道單位에 있어서는 최저 72.7%(경상북도)에서 최고 90.9%(전라북도)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分析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韓國公共圖書館의 奉仕施設은 외형에 못지 않게 內容도 빈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公共圖書館이 모임의 장인 만큼 그 基本施設인 閱覽을 위한 座席만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地域社會의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자유롭게 무료로 奉仕하여<sup>25)</sup> 平生教育의 場으로서 機能遂行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必要한 것이 모일 수 있는 閱覽施設의 충실성과 그 確保의 시급성이 있다.

### 3. 公共圖書館의 藏書現況

公共圖書館은 人類의 사고와 經驗을 전달할 資料를 제공하기 위한 存在이다.<sup>26)</sup> 公共圖書館의 資料는 知識과 文化 傳達의 산 實證<sup>27)</sup>으로서 地域社會의 成員들에게 研究, 職業, 文化, 娛樂的인 사용을 위해 무료로 무한정 冊과 그리고 관계된 資料를 예견하는 存在이다.<sup>28)</sup> 公共圖書館은 休息과 즐거움을 위한 圖書를 공급하여 사람들의 정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학생들을 원조하며 最新의 科學的, 技術的 및 社會的 정보를 제공하는데 全力

24) 韓國圖書館協會 基準分科委員會 編, *op. cit.*, p. 21.

25) ALA.,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3 ), p. 181.

2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Service : a guide to evaluation with minimum standards*, (Chicago : ALA., 1956 ), p. 31.

27) Unesco 公共圖書館宣言 중에서

28) K. C. Harrison, *op. cit.*, p. 60.



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地域社會의 주민들 사이에서 圖書 및 其他 讀書資料의 公共利用을 위한 計劃의 必要性이 公共圖書館 理念의 基本<sup>29)</sup>이 되어야 한다.

公共圖書館이 개인이용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 것은 讀書活動을 통한 自己教育이 개인을 단위로 해서 성과 있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sup>30)</sup>에 公共圖書館의 資料는 모든 사람들에게 必要로 하는 情報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 地域社會의 圖書館은 반드시 요구될 수 있는 충분한 資料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自己教育을 위한 圖書館 奉仕의 가장 核이 되는 도구가 情報源인 資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圖書館의 生存의 價値의 하나는 情報의 무질서한 狀態를 질서화<sup>31)</sup>시켜서 必要한 사람에게 正確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므로써 정보이용의 可能性을 最大化시켜 주는 社會的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圖書館이 平生教育의 場으로서 주민에게 인정받고 주민이 찾고자 하는 機關으로 發展하는 데는 이들이 必要로 하는 情報의 양과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資料는 成人教育의 보다 훌륭한 많은 要素를 포함한다.<sup>32)</sup> 그래서 정보는 社會教育的인 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公共圖書館의 도구이다.

韓國公共圖書館이 確保하고 있는 資料의 現況을 살펴보면 <表 9>와 같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181 個 圖書館이 保有하고 있는 總藏書는 4,517,280 권으로 人口 100 명에 11 권의 비율이다. 이것 역시 市單位平均 0.18 권이나 道單位는 平均 0.05 권으로 資料의 대부분이 市單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各 地域別 人口에 비하여 가장 많은 資料를 確

29) C. H. Campbell, 공공도서관개 발론, (Developing Public Library System and Services), 이병목 역, (서울: 구미무역, 1985), p. 29.

30) 이규환,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의 사회교육적 역할”, 도서관, 第 29 卷 第 7 號, (1974. 7-8), p. 6.

31) 김세익, 도서관과 사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 7.

32) Sheats, Paul H. et al., *op. cit.*, p. 190.

&lt;表 9&gt; 人口比에 의한 圖書館藏書 現況

1986年現在

시도별	인구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Schenk의 기준 설치율(1인1책)	IFLA의 기준 설치율(1인2책)
서울	9,798,542	2,234,375	0.23	22.8	11.4
부산	3,578,844	461,912	0.13	12.9	6.5
인천	1,441,131	105,374	0.07	7.3	3.7
대구	2,092,989	334,236	0.16	16.0	8.0
광주	928,851	160,275	0.17	17.3	8.6
소계	17,840,357	3,296,172	0.18	18.4	9.2
경기	5,075,449	239,790	0.05	4.7	2.4
강원	1,750,707	145,147	0.08	8.3	4.2
충북	1,396,160	86,542	0.06	6.2	3.1
충남	3,009,102	97,445	0.03	3.2	1.6
전북	2,192,133	99,969	0.05	4.6	2.3
전남	2,848,897	130,984	0.05	4.6	2.3
경북	3,035,391	173,430	0.06	5.7	2.9
경남	3,516,829	186,570	0.05	5.3	2.7
제주	459,968	61,231	0.13	13.3	6.7
소계	23,266,636	1,221,108	0.05	5.2	2.6
계	41,106,993	4,517,280	0.11	11.0	5.5

資料 : Sheats, Paul H. et al., 성인교육 (Adult Education), 홍순철 역, (서울 : 문교부, 1963), p. 201.

Campbell, C.H., 공공도서관 개발론 (Developing Public Library System and Services), 이병목 역, (서울 : 구미무역, 1985), p. 65.

保하고 있는 地域은 1인당 0.23권인 서울특별시이고 가장 낮은 地域은 1인당 0.03책인 충청남도이다.

이를 다시 市單位와 道單位別로 살펴 보면, 市單位는 최고수준인 서울특

별시를 제외하면 3개의 직할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인천직할시는 道單位水準인 0.07 권으로 가장 저조하다. 道單位에 있어서는 0.13 권인 제주도가 가장 높고 0.03 권인 충청남도(가)가 가장 낮으며 그 외의 7개도는 0.05 권 전후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구 100 인당 5 권인 셈이다.

<表2>에서 제시한 바 있는 世界 여러나라의 圖書館 資料現況과 比較해 보면 韓國과 經濟水準이 비슷한 멕시코 4.95 권, 덴마크 6.52 권이며 선진국인 미국 1.93 권, 스웨덴 5.15 권, 핀란드 6.15 권으로 되어 있어 韓國과는 비교될 수 없을만큼 많은 資料를 確保하고 있다.

이것을 K.Knief Schenk의 1인당 1 권의 기준<sup>33)</sup>에 의하면 韓國에는 41,106,993 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4,517,280 권은 이 기준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IFLA基準에 의하면 최소 經營單位에 있어서는 주민 1인당 적어도 3 권을 필요로 하나, 이 책수는 人口가 늘어날 수록 적어져서 만족할 수 있는 一般基準은 住民 1인당 2 권으로 되어 있다.<sup>34)</sup> 이 基準에 따르면 現 韓國의 실정에서는 82,213,986 권의 資料가 確保되어야 한다. 이에대한 현재의 確保率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資料의 現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10>과 같다.

<表10> 圖書館當 藏書 現況 1986年現在 單位:册

시도별	1000 미 만	1000- 5000	5001- 10000	10001- 20000	20001- 30000	30001- 50000	50001- 이 상	불명	계
서울		3	1	7	1	3	9		24
부산		2	1	4	2	2	1		12
인천				1		1	1		3
대구			2			2	2		6
광주						1	2		3
소계		5	4	12	3	9	15		48

33) *Ibid.*, p. 201.

34) Campbell, H. C., *op. cit.*, p. 60.

시도별	1000 미만	1001- 5000	5001- 10000	10001- 20000	20001- 30000	30001- 50000	50001- 이상	불명	계
경기	1	12	5	1	1		2	1	23
강원	1	4	5	3	2			1	16
충북	1	5		1			1		8
충남		4	4	1		1		1	11
전북		5	6						11
전남	1	2	13	2					18
경북		5	13	4					22
경남		11	3	5	1	1			21
제주		1			2				3
소계	4	49	49	17	6	2	3	3	133
계	4	54	53	29	9	11	18	3	181
%	2	30	29	16	5	6	10	2	100

<表10>에서 보면 10,000권 미만 61%, 30,000권 미만 82%, 50,000권 미만 88%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도서관이 30,000권 미만의 圖書館임을 알 수 있고, 50,000권 이상의 圖書館은 18 個館으로 10%에 불과하며, 1,000권 미만의 圖書館도 4 個館이나 있다.

市單位에서는 30,000권 이상의 圖書館이 24 個館인데 비해 30,000권 이하의 圖書館이 24 個館으로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道單位에서는 125 個館이 30,000권 이하이고 5 個館만이 30,000권 이상을 確保하고 있어市나 道單位的 중심되는 32 個의 圖書館을 제외하고는 教育的인 機能을 감당할 수 있는 資料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公共圖書館이 주민으로 부터 외면당해온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때 藏書의 確保率은 전술한 모든 施設 중에서 가장 뒤져 있는 施設로서 정보전달을 통한 社會教育的 機能 遂行을 위한 公共

圖書館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公共圖書館의 教育機能道具인 資料의 確保가 없이는 어떠한 教育的 機能도 기대할 수 없으며 극히 한정된 機能遂行의 범위를 넘지 못할 것이다.

#### IV. 公共圖書館의 施設確充을 위한 試案

##### 1. 公共圖書館의 設置

1945年 이후부터 1986년까지 韓國公共圖書館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게 동기는 1963年 圖書館法 公布, 1970年代의 圖書館推進事業, 1982年의 社會教育法 制定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韓國의 圖書館 실정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GNP를 가진 여러 國家들에 비하여 너무 많은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住民의 社會教育機關으로서 教育的 機能을 감당할 수 있는 圖書館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새세대를 끌고갈 住民의 지지를 얻게 하여야 하고 평화롭고 밝은 住民의 生活向上을 도모할 수 있도록<sup>35)</sup>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教育機關으로서의 施設要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韓國의 地理的인 여건과 奉仕人口의 분포에 따른 圖書館施設의 改善과 增設을 위한 試案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Armstrong의 기준에의 試案의 模索이다. 이가 設定한 館當奉仕人口를 최저 2,000명으로 한다면 韓國 總人口 41,106,993명(1986년 11월 현재)을 위한 公共圖書館은 20,553 個館이 있어야 하고, 최고 10,000명에 1 個館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적어도 411 個館은 있어야 하며, 또한 資料利用의 機能 遂行을 위한 館當 奉仕對象人口 5,000명에 의하

35) 小林文人 編, *op. cit.*, p. 197.

면 8,221 個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初等學校의 學區別에 따른 시안의 모색이다. 이의 근거는 三浦道雄이 제시한 圖書館과 圖書館의 거리는 2 k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sup>36)</sup>을 적용하면 이 기준에 가장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教育施設이 初等學校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것이다. 韓國에서 거리적인 측면이나 인구적인 측면에서 地域住民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比較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韓國의 여건에 가장 알맞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表 11> 初等學校와 公共圖書館 現況

1986 年現在

시 도 별	인 구 수	초 등 학교수	1 교당 인구수	공 공 도서관수	학교수에 의한 설치율 (%)
서 울	9,798,542	431	22,734	24	5.57
부 산	3,578,844	198	18,075	12	6.06
인 천	1,441,131	80	18,014	3	3.75
대 구	2,092,989	109	19,202	6	5.50
광 주	928,851	52	17,863	3	5.77
경 기	5,075,449	593	8,559	23	3.88
강 원	1,750,707	295	5,935	16	5.42
충 북	1,396,160	289	4,831	8	2.77
충 남	3,009,102	613	4,909	11	1.79
전 북	2,192,133	528	4,152	11	2.08
전 남	2,848,897	656	4,343	18	2.74
경 북	3,036,391	765	3,968	22	2.88
경 남	3,516,829	713	4,932	21	2.95
제 주	459,968	90	5,111	3	3.33
계	41,106,993	5,412	7,596	181	3.34

資料 : 문교통계연보, 1987, (서울 : 문교부, 1987), p. 60.

36) 三浦道雄, *op. cit.*, p. 17.

이 基準에 의하면,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初等學校數 5,412 個校 (分校 除外), 學校當 平均人口 7,596 명으로 되어 있다. 이 基準을 公共圖書館에 적용하면 5,412 個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基準에 따라 본고에서는 제시된 諸基準과 韓國의인 여건에 가장 가깝게 接近되고 있는 初等學校의 學校數에 따라 公共圖書館 基準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分析과 試案을 제시하였다. 이 基準에 의하면 館當 奉仕人口는 7,596 명으로 Armstrong의 基準 5,000 명은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전술한 벨기에, 아이슬랜드, 오스트리아, 폴란드(表 2 참조) 등의 國家들의 水準에 비교적 가깝게 接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初等學校數 만큼 公共圖書館을 증설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奉仕據點(Service point)을 많은 곳에 설정하는 것이 必要하다. 奉仕據點이라 함은 直接的인 奉仕가 행해지는 經營單位 또는 圖書館體制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分館, 寄託所, 配本所, 自動車文庫 등<sup>37)</sup>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外國에서는 奉仕據點을 많이 설치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圖書館機能의 많은 부분을 카바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經營單位規模의 圖書館의 1,028 個館인데 奉仕據點은 2,017 個, 핀란드는 461 個館에 奉仕據點은 1,781 個, 프랑스는 1,141 個館에 奉仕거점은 2,422 個 네덜란드는 471 個館에 奉仕據點은 1,069 個<sup>38)</sup>로 住民들에게 奉仕據點을 통하여 接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住民가까이에 公共圖書館의 증설방안을 강구하되 地域別로는 市單位의 都市地域에 비해 道單位의 地域이 公共圖書館의 設置率이 저조하므로 이들 地域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人口의인 측면과 거리적인 측면의 기준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公共圖書館 설치 기준의 보다 상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37) Campbell, H. C., *op. cit.*, p. 59.

38)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6, pp. VII-13~VII-20.

## 2. 公共圖書館의 奉仕施設

公共圖書館의 奉仕施設 試案으로는 建物施設과 閱覽施設로 생각하여 보았다.

現在 設置되어 있는 公共圖書館을 기준으로 소요평수를 계산하였다.(表 5 참조). 市單位의 소요 總坪數는 156,000 坪<sup>39)</sup> 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總坪數는 44,600 坪으로 28.6%의 確保率을 나타내고 있고, 道單位의 소요 總坪數는 116,700 坪<sup>40)</sup> 인데 現在 總保有 坪數는 39,667 坪으로 34.3%의 確保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 分析에서는 市單位보다 道單位의 確保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圖書館施設 比率 자체가 낮기 때문에 증설해야 할 기준에 의하면 確保率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다시 地域別로 보면 市單位 중에서는 광주직할시가 보유총평수 1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직할시와 대구직할시가 80%를 상회하고, 大都市인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23.1%와 12.6%로 저조한 실정이다. 道單位에서는 제주도가 83.3%로 가장 높고, 그 외의 8 個道는 모두가 40%미만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21%미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에 따라 施設을 보완 확충하되 道單位 地域을 市單位 地域보다 우선하고, 道단위에서는 시, 읍단위 보다는 면단위지역에 우선하므로 全國이 골고루 文化的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閱覽施設에 대한 試案으로는 座席數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보았다. 韓國公共圖書館이 보유한 總閱覽席은 88,455 席으로 1 席當 奉仕對象人口는 465 명으로 三浦道雄이 제시한 기준 1,000 인당 5 석에 의하면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 韓國公共圖書館에는 205,535 席이 있어야

39) 根據는 1 館當 2,300 坪(韓國圖書館協會의 基準)을 해당 地域의 圖書館數로 곱한 것임(表 5 參照).

40) 根據는 1 館當 900 坪(韓國圖書館協會의 基準)을 해당 地域의 圖書館數로 곱하였음(表 5 參照).



한다. 이렇게 閱覽施設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임의 장으로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地域住民의 만남의 장소로서, 학습을 위한 自己教育의 場으로서 일차적인 施設인 座席數의 확보는 말할것도 없이 보다 안락한 施設로서 住民이 찾고자 하는 施設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 3. 公共圖書館의 藏書

藏書에 대한 施案으로는 Schenk 와 IFLA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정해 보았다. 韓國 181個 公共圖書館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장서는 4,517,280 권으로 Schenk의 기준에 의하면 11%의 확보율에 불과한 실정이고, IFLA의 기준 1인당 2권을 적용하면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의 두개기준 중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게 하려면 IFLA의 기준에 의해야 하지만 한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제 1 단계로 Schenk의 기준을 충족요건으로 하고 제 2 단계로 IFLA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의 기준이 되는 Schenk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1인당 1권은 있어야 하므로 韓國 總人口數인 41,106,993 권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圖書館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이를 확보할 수 있는 政策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전국적인 정보망의 형성은 물론 장서의 확보를 위한 圖書館人과 專門人들 간의 協力으로 중복구입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試案에 제시된 시설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公共圖書館의 설치에 관한 시민적 관심은 물론 政策的인 行政의 次元에서의 과감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計劃性 있는 努力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V. 結 論

公共圖書館이 平生教育의 場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公共圖書館이 施設中心의 社會教育機關인 만큼 무엇보다도 施設的인 구비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公共圖書館의 施設現況과 奉仕施設 및 藏書現況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試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在 韓國公共圖書館의 設置現況은 181 個館으로 이는 1 館當 奉仕 對象人口가 227,110 명으로 나타나, 公共圖書館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Armstrong의 基準과 初等學區에 따른 公共圖書館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였다. 전자에 의하면 全國에 8,221 個의 公共圖書館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후자에 의하면 최소한 5,412 個館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韓國公共圖書館이 보유하고 있는 建物面積 84,267 坪(1 館當 466 坪)은 人口比에 의하면 크게 저조한 형편이므로 地域別 人口比에 의한 기준에 따라 施設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88,455 석의 閱覽施設도 1000 인당 5 석의 기준에 따라 최소한 205,535 석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全國公共圖書館의 總藏書는 4,517,280 권으로 人口 100 인에 11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여러 기준 중에서 1 단계적인 조치로 최소의 기준인 1 인 1 권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인구수에 의한 41,106, 993 권의 책은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國家的인 施策이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못지 않게 일반주민이 生活의 場으로서, 自己教育의 場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公共圖書館에서 奉仕하는 인적인 성원들도 教育者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必要時 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책 입안자와 이용자 그리고 도서관이 합심 협력하여 韓國의 도서관을 발전시키겠다는 노력이 경주될 때 公共圖書館의 발전은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A Study of Requirements of the Public Library  
for Life-long Education

- Centering Around the Facilities -

Kim, Nam-Se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and much more the facilities and collection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for performance of its function, for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 looked in to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acilities, collections, service facilities in public libraries and suggested a tentative plan on the basis of every kinds of statistics.

The result of this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Now, 227,110 populations of the effective service per library are so many that 181 public libraries in Korea have largely deficient state.

To solve, applied for Armstrong's standards (5,000 populations of the effective service per library, and the number of an elementary school (5,412 elementary schools in Korea). In the former case should be establish 8,221 public libraries, in the latter case should be established at least 5,412 public libraries.

2. The public library in Korea is possessed of building areas of 82,267 pyong (468 pyong per library). They are very poor state

---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s, College of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comparing with population.

Therefore, the building area should be expand according to population by region. Also, the reading facilities of 88,455 seats, 465 population of the effective service per seat, are largely insufficient of situation.

And consequently they should be secured at least 205,535 seats with standards of five seats per 1,000 population.

3. The public libraries in Korea keep collection of 4,517,280 volumes. As there are 11 volumes per 100 persons, they are very deficient state in figures.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ed Schenk's standard ( 1 volume per a person ) and IFLA standard ( 2 volumes per a person ). Under the circumstances of our country, however, they should be secure at least 41,106,993 volumes with a Schenk's standard of one volume per a person.

To meet this kind of necessary conditions, there must not only be a national policy but also be a facility for every residents to utilize for educational place, and to every librarians of public libraries, they have to do their best to open their library to every citizens, when needed, with their self-conceit.

Cooperating with policy-makers, users, and librarians, making every endeavours to develop Korean libraries, we can promise the hope that our public library will be progressed towards future.